

옛날 옛적 강이영성이서불과 홍운소천궁에궁전궁납¹⁾ 올라 웃상실 누려 젯상실 사옵데다. 가난
하고 서난²⁾ 흐를날은 강이영성은 알옛녁의 시절(時節)이 좋댄³⁾ 허연 얻어먹으려 누려사고
홍운소천은 우잇녁의 시절이 좋댄 허연 얻어먹으려 올라사단 질엣 돌도 연분(緣分)이 셔⁴⁾ 서로
만나 통생명(通姓名) 연약(言約)되어 부베살림[夫婦生活] 마련흡데다.

그날부띠 강이영성과 홍운소천은 간곤하고 서난⁵⁾ 난 놈의 품팔이 흐명 그리 저리 사는 게 부
베간(夫婦間) 솟이에 유태(有胎)가 잊어진다.⁶⁾ 아방[父] 몸에 흰 피[白血] 석돌[三個月] 어멍[母]
몸에 감온 피[黑血] 석돌 술[肉] 술아⁷⁾ 뼈[骨] 술아 아홉 돌 준삭(準朔) 체와 예궁네(女宮女) 애기
솟아난다. 일가방상[一家親族] 엊어지고 먹을 쓸 입을 웃 엊어지난. 동네에서 풀쌍⁸⁾ 은(銀)그
릇에 그를[粉]을 카다 맥연⁹⁾ 살려 주난 은장아기로 일름 삼제(三字) 지와놓고. 이 아기 훈두설이
넘어가난 둘찾 뜰이 포테(胞胎)되어 간다. 아방[父] 몸에 흰 피 석 돌 어멍[母] 몸에 감온피 석
돌 열흘 술 술아 뼈 술아 아홉 돌 열 돌 준삭(準朔) 체와 예궁네애기 솟아난다. 동넷 사름 모다
들어¹⁰⁾ 놋그릇에 그를 카단 메견 살려 놋장아기로 일름 삼제 지와 간다. 짖찻뜰은¹¹⁾ 포테(胞胎)되
니 아방 몸에 흰 피 석 돌 어멍 몸에 감온 피 석 돌 아홉 덜 열 돌 준삭(準朔) 체와 예궁네 애기
솟아나니 동넷 사름 모다들어 남박새기에¹²⁾ 그를[粉]을 카단 맥여 살려 주난 가문장아기로 일름
삼제 지와간다.

은장아기 놋장아기 가문장아기 식성제[三兄弟]가 솟아나 훈두설이 훠여가니. 츠¹³⁾ 츠이¹⁴⁾ 츠¹⁵⁾ 발복(發
福) 훠여 유기전답(鎰器田畜) 좋아지고 물¹⁶⁾ 무쉬¹⁷⁾ 좋아지고 가제¹⁸⁾ 높은 와개집[瓦家] 닉 귀에 풍경
돌아 천아거부(天下巨富)가 훠여간다. 뜰 식성제 키우는디 상다락[上樓]에 중다락 하다락을 무어¹⁹⁾
놓고 노념놀이 시겨가멍 키우는디 무정세월여류(無情歲月如流)해야 열다섯 십오세 넘어진다.

흐를날은 비는 촉신촉신 오는디 강이영성광²⁰⁾ 홍운소천 부베간이 앗아둠서²¹⁾ 하도 심심 야심
흐난²²⁾ 뜰아기덜쾅 문답(問答)이나 허여보저.

“큰뜰아기 이레 오라. 은장아기 너는 누게²³⁾ 덕에 먹고 입고 행우발신(行爲發身) 흐느냐?”

“하늘님도 덕(德)이웨다. 지애님(地下一)도 덕이웨다. 아바님도 덕이웨다. 어머님도 덕이웨다.”

1) 홍운소천궁에궁전궁납 : 가문장아기의 모신명.

2) 서난²⁴⁾ 흐난 : '가난'에 대한 조운구.

3) 시절(時節)이 좋댄 : '시절이 좋다'함은 농사가 풍년들었다는 말.

4) 셔 : 있어.

5) 잊어진다 : 있어진다.

6) 술아 : '술다' 또는 '설다'=아기서다의 서다.

7) 카다 맥연 : 타다 먹여서.

8) 모다들어 : 모여들어.

9) 짖찻뜰은 : 세째 딸은.

10) 남박새기 : 나무 바가지.

11) 츠¹³⁾ 츠이¹⁴⁾ 츠¹⁵⁾ : 차차. 점점.

12) 물¹⁶⁾ 무쉬 : 마소. 우마. '무쉬'라고만 하기도 하고 '물무쉬'라 하기도 함.

13) 가제 : 처마.

14) 무어 : 지어. 설비하여. 배설하여. 맷어 등의 뜻으로 씀.

15) 강이영성광 : 강이영성과. -과. 공동격.

16) 앗아둠서 : 앗아서. 앗은 채로.

17) 야심²⁵⁾ 흐난 : 심심하다에 대한 조운.

18) 누게 : 누구의.

“큰뜰아기 기뜩(奇特)하다. 어서 느 방으로 가라.”

“셋뜰아기¹⁹⁾ 이레 오라. 놋장아기 너는 누게 덕에 먹고 입고 행우발신(行爲發身) 흐느냐?”

“하늘님도 덕이웨다. 지애님도 덕이웨다. 아바님도 덕이웨다. 어머님도 덕이웨다.”

“셋뜰아기 기뜩(奇特)하다. 어서 느 방으로 가라.”

“족은뜰아기 이레 오라. 가믄장아기, 너는 누게 덕에 먹고 입고 행우발신 흐느냐?”

가믄장아기 말을 흐뒈.

“하늘님도 덕이웨다. 지애님(地下一)도 덕이웨다. 아바님도 덕이웨다. 어머님도 덕이웨다마는 나 베또롱 알에²⁰⁾ 선그뭇²¹⁾ 덕으로 먹고 입고 행우발신(行爲發身) 흡네다.”

“이런 불효막심(不孝莫甚) 흐 예즈식(女子息)이 어디 있겠느냐. 어서 빨리 나고 가라.”

어멍 눈에 골리나고 아방 눈에 시찌 나²²⁾ 입단 입성²³⁾ 거더설러²⁴⁾ 감은 암쉐예 시꺼 놓고²⁵⁾ 먹을 군량(軍糧)²⁶⁾ 시꺼놓고 나고 간다.

“어머님아 잘 살암십서.²⁷⁾ 아바님아 잘 살암십서.”

먼 정에²⁸⁾ 나오난²⁹⁾ 설운 어머님 부모의 정이(情誼)라 뜰주식 보네젠 흐난 섭섭허연.

“큰뜰아기 나고 보라. 설운 뜰아기 식은 밥에 물좀이라도³⁰⁾ 먹엉 가랭 골으라.”³¹⁾

설운 큰성 은장아긴 물팡돌³²⁾ 우테레³³⁾ 올라사멍,

“설운 아시야 훈저 가불라. 아방 어멍 늘³⁴⁾ 뜨리레 나왑쩌.”

가믄장아기 말을 흐뒈.

“설운 큰성님 물팡돌 알로 누려사건 청주뎅이³⁵⁾ 몸으로나 환싱(還生) 흡서.”

설운 성님 물팡돌 알레레 누려사난 청주뎅이 몸으로 환싱허여간다.

큰뜰아기 나간 게 아니 오라가난³⁶⁾ 셋뜰아기 불러 놓고,

“저 올레³⁷⁾에 나강 보라. 서룬 아기 떠나는디 식은 밥에 물좀이라도 먹엉 가랭 흐라.”

설운 셋성³⁸⁾ 놋장아기 올레에 나오란³⁹⁾ 걸름 우테레⁴⁰⁾ 올라사멍,

“아이고 설운 아시야 훈저 가불라. 아방 어멍 늘 뜨리레 나왑쩌.”

19) 셋뜰아기 : 둘째 딸아기.

20) 베또롱 알에 : 배꼽 밑에.

21) 선그뭇 : 하복부의 배꼽에서부터 성기 쪽을 향해 그어진 금.

22) 시찌 나 : 눈에 거슬리어.

23) 입단 입성 : 입던 의복.

24) 거더설러 : 거두어 설것이하여.

25) 시꺼 놓고 : 실어놓고.

26) 군량(軍糧) : 식량의 뜻으로 쓰인 것.

27) 살암십서 : 살고 있으십시오. 작별할 때 하는 인사말.

28) 정 : 집의 출입로에 대문 대신 가로 걸쳐 놓은 굵은 나뭇대.

29) 나오난 : 나오니.

30) 물좀이 : 물말아 놓은 것.

31) 골으라 : 말해라.

32) 물팡돌 : 노둣돌(下馬石).

33) 우테레 : 위로.

34) 늘 : 너를.

35) 청주뎅이 : 청(青)지네.

36) 오라가난 : 와 가니.

37) 올레 : 거릿길에서 집으로 드나드는 골목길. 출입로(出入路).

38) 셋성 : 둘째 형. 둘째 언니.

39) 나오란 : 나와서.

40) 걸름 우테레 : 거름 위로. 올레 어귀에. 퇴비(堆肥)를 쌓아 놓는데 그 위에 올라선 것임.

가믄장아기 말을 旱羸.

“설운 셋성이랑 걸름 알레레 누려사건 용달버섯 몸으로나 환싱흡서.”

설운 셋성 걸름 알레레 누려사난 용달버섯 몸으로 환싱(還生)허여 간다.

강이영성과 흥운소천은 앗았다네. 큰뜰아기 소식(消息)엇고 셋뜰아기 소식 엊어가난
“이게 어떤 일일련고?”

문 밧결데레⁴¹⁾ 내듣다가 문 웃지방에⁴²⁾ 눈이 걸련⁴³⁾ 안맹천지(眼盲天地) 되옵데다. 강이영성이
서불 흥운소천궁에궁은 앗아둠서 먹고 입고 써 가난 제산(財產)이 탕진(蕩盡)허여 게와시로⁴⁴⁾ 나
사간다.⁴⁵⁾

가믄장아긴 감은 암쉐[黑牝牛]예 먹을 군량(軍糧) 시꺼아전⁴⁶⁾ 이 자⁴⁷⁾ 넘고 저 자 넘고 신산만
산 굴미굴산⁴⁸⁾ 올라가는디 헤는 일락서산(日落西山) 다 지어가고 월출동경(月出東嶺)에 들은 아
니 솟아오고 미여지벵뒤⁴⁹⁾ 만여지벵뒤⁵⁰⁾ 산중(山中) 산앞 인간철(人間處) 등기젠큐⁵¹⁾ 旱단보난 대
축나무 지둥에⁵²⁾ 거적문에 웨돌처귀⁵³⁾ 무은⁵⁴⁾ 비초리초막이⁵⁵⁾ 잇었구나.

“이디나 강 旱를 밤만 유이허영 가저.”⁵⁶⁾

먼 정으로 들어사명 보난 벡발노장(白髮老長) 할망⁵⁷⁾ 하르방⁵⁸⁾ 잇어지난. 감은 암쉐에 먹을 군
량(軍糧) 시끈 건 싱근돌⁵⁹⁾ 물팡돌에⁶⁰⁾ 메여두고 들어가멍.

“넘어가는 행인(行人)인디 헤는 서산(西山)에 다 저물어지고 갈 디 엊어지니 旱를 밤 유이허였
당 가기 어찌 흡네까?”

할망 하르방이 말을 旱羸.

“우리 집인 아들도 삼형제 있어지고 누어질 빈 방도 웃수다.”

“방이 웃건⁶¹⁾ 정짓간이라도⁶²⁾ 좋으메 旱를 밤만 유이(留依)하게 허여줍서.”

“어서 걸랑 기영흡서.”

들어간 앗아시난⁶³⁾ 헤가 저가니, 와르릉탕 와르릉탕 소리가 바꼈들로⁶⁴⁾ 나아가니.

41) 밧결데레 : 바깥으로.

42) 웃지방에 : 문의 위쪽의 지방.

43) 걸련 : 걸려서.

44) 게와시로 : 거지로.

45) 나사간다 : (얻어 먹으려) 나아간다.

46) 시꺼아전 : 실어서.

47) 자 : 재(礮).

48) 굴미굴산 : 미상 산명(山名). 매우 깊은 산 중의 뜻으로 씀.

49) 미여지벵뒤 : 끝없이 넓은 벌판.

50) 만여지벵뒤 : 미여지벵뒤에 맞춘 조운구.

51) 등기젠큐 : 당기려고. 가까이 하려고.

52) 대축나무 지둥에 : 수수깡 기둥에.

53) 웨돌처귀 : 외(單) 돌찌귀.

54) 무은 : 설비한의 뜻.

55) 비초리초막 : 매우 작은 초막.

56) 유이허영 가저 : 머물려서 가고자.

57) 할망 : 할머니.

58) 하르방 : 할아버지.

59) 싱근돌 : 심은 돌. 땅을 파서 심어 세운 돌.

60) 물팡돌 : 허벅에 물을 져다가 부려 놓도록 길고 넓적한 돌을 양쪽에 세우고 그 위에 또 넓적한 돌을 가로 올려놓아 반반
하게 한 것.

61) 웃건 : 없거든.

62) 정짓간이라도 : 부엌이라도.

63) 앗아시난 : 앗아 있으니까.

64) 바꼈들로 : 바깥으로.

“이건 무슨 소리우까?”⁶⁵⁾

“우리 집의 큰마퉁이 마 판 울려오는 소리우다.”

흐쓸 시난⁶⁶⁾ 큰마퉁이 들어오더니마는,

“요 우리 어멍[母] 아방[父] 우린 애쓰게 마 파당 베[腹] 불게 맥이당 보민 넘어가는 떼간아
이⁶⁷⁾ 두려당 노념허염구나.”⁶⁸⁾

후욕(詬辱)한다.

흐쓸 시난 또 와릉탕 와릉탕 소리가 배겼들로 나아가니 가믄장아기가.

“이건 무슨 소리우까?”

“우리 집의 셋마퉁이⁶⁹⁾ 마 판 울려오는 소리우다.”

셋마퉁이 들어오더니마는,

“우리 어멍 아방 우린 마 판단 잘 맥이단 보난 질[路] 넘어가는 떼간아이 머쳤구나.⁷⁰⁾ 우리 집
마당원 시상⁷¹⁾ 쉐[牛]도 아니 메여난디 풍문조화(風雲造化) 들었구나.”

후욕(詬辱)을 허여간다.

흐꼼 시난⁷²⁾ 또 와릉탕 와릉탕 소리가 나니,

“이건 무슨 소리우까?”

“이건 우리 족은 마퉁이 마 판 울려오는 소리우다.”

족은 마퉁인 먼 정으로 들어사명 서른 둘 낫바디⁷³⁾ 허우덩싹⁷⁴⁾ 웃으멍,

“하, 이거 우리 집의 난디웃이⁷⁵⁾ 감은 암쉐여 사름이여 문 들어오란,⁷⁶⁾ 어느 하늘에서 도웨
는⁷⁷⁾ 일이나 아니가.”⁷⁸⁾

반가이 흐멍 들어온다.

?만서 보난, 큰마퉁인 마를 숲안,

“어멍 아방은 문저 난 하영 먹어시메⁷⁹⁾ 마 야개기나⁸⁰⁾ 먹읍서.”

마 야개길 꺼꺼 주고 이녁(自己)은 존둥이로 우막우막⁸¹⁾ 먹어가고, 셋마퉁인 마를 숲안,

“어멍 아방은 문저 난 하영 먹어시메 마 꼴렝이나⁸²⁾ 먹읍서.”

마 꼴렝일 그찬⁸³⁾ 주고, 족은 마퉁인 마를 숲으난.

65) 소리우까 : 소리입니까.

66) 흐쓸 시난 : 조금 있으니.

67) 떼간아이 : 계집애를 낮추어 일컫는 말.

68) 노념허염구나 : 놀이하고 있구나.

69) 셋마퉁이 : 둘째 마퉁이.

70) 머쳤구나 : 머물게 했구나.

71) 시상 : 세상에. 전연.

72) 흐꼼 시난 : 조금 있으니.

73) 낫바디 : 잇바디.

74) 허우덩싹 : 입을 크게 벌려 웃는 모양.

75) 난디웃이 : 난 데 없이.

76) 문 들어오란 : 모두 들어와서.

77) 도웨는 : 도우는.

78) 아니가 : 아닌가.

79) 하영 먹어시메 : 많이 먹었으니까.

80) 야개기나 : 목(頸)이나.

81) 우막우막 : 음식을 자꾸 많이 넣으며 맛있게 먹는 모양.

82) 꼴렝이나 : 꼬리나.

83) 그찬 : 끊어.

“설운 어머님 아바님 우리덜 난 키우젠 훈게 얼마나 공(功)이 들고, 이제 살만 맷헬 살 거우까.”
양 끗(兩端)은 꺼꺼두고 존동이로 드리는구나. ?만 보난 쓸만훈 건 족은 마퉁이뱃기 또 웃구나.⁸⁴⁾
가믄장아긴 츄나록쌀⁸⁵⁾ 잘 일어두고 솟을 빌언 밥을 훈고,
“문전(門前)⁸⁶⁾ 모른 공스⁸⁷⁾ 시멍⁸⁸⁾ 주인(主人) 모른 나그네 잇소리까.”
밥을 거려⁸⁹⁾ 상(床) 출려아전⁹⁰⁾ 할망 하르방신디 들러가니.
“하르방 데에도 아니 먹어난 거여.”
호명 아니 먹으니, 큰마퉁이안티 들러가니.
“조상 데에도 아니 먹어난 거. 이런 버렝이밥⁹¹⁾ 아니 먹키여.”⁹²⁾
풋죽 ?뜬 용심만⁹³⁾ 내니, 족은 마퉁이안티 밥상을 들러가난 서로 성통명(姓通名)하고 순작만
썩⁹⁴⁾ 빙에기만썩⁹⁵⁾ 무룩무룩⁹⁶⁾ 거려 먹나.⁹⁷⁾
큰마퉁이 셋마퉁인 창고망으로 바레다네⁹⁸⁾ 아시(弟) 먹는 거 보난 불루와네.
“설운 아시야 우리도 훈 수까락 도라.”⁹⁹⁾
“자십생¹⁰⁰⁾ 훌 땐 말았다그네¹⁰¹⁾ 담읍생¹⁰²⁾ 훌 땐 무사¹⁰³⁾ 먹쿠가?”
한가운딧 더운 밥으로 거려아전¹⁰⁴⁾ 큰성 셋성 손데레 노난 푸푸떠불라¹⁰⁵⁾ 먹어간다.
밥상 다 설러분 끗덴 질례옛 돌도 연분(緣分)이 있언 꽃[花]본 나부[蝶]라. 언약(言約)이 뒤여
족은 마퉁이 몸모욕 시기고 새옷 입져 내여노니 절세미남(絕世美男)이 분명호구나. 벡년동거(百
年同居) 훈 방에 즘을 잔다.
뒷날 아죽[翌日朝] 감은장아기가,
“산중(山中) 산앞(山前) 마 파난 디나 구경 갑주.”¹⁰⁶⁾
족은 마퉁이영 가고 보니, 큰마퉁이 마 파난 딘 누릿누릿훈 거 잇엉¹⁰⁷⁾
“이거 무스건고”¹⁰⁸⁾

84) 웃구나 : 없구나.

85) 츄나록쌀 : 찹쌀.

86) 문전(門前) : 문신, 특히 삼방(마루방)의 앞쪽 문신(一門前)을 가리킴.

87) 공스 : 공신(恭神)의 와(訛). 축원 제의의 뜻.

88) 시멍 : 있으며.

89) 거려 : 떠.

90) 출려아전 : 차려서.

91) 버렝이밥 : 벌레밥(蟲飯).

92) 먹키여 : 먹겠다.

93) 용심만 : 화만.

94) 순작만썩 : 두꺼비가 늙어 털이 나서 된다는 새. 평새끼 같음. '-만썩'은 -만큼씩.

95) 빙에기만썩 : 병아리만큼씩.

96) 무룩무룩 : 그릇에 넘을 만큼 양이 많은 모양. 숟가락으로 가득 떠먹는 모양.

97) 거려 먹나 : 떠 먹는다.

98) 바레다네 : 보다가.

99) 도라 : 달라.

100) 자십생 : 잡수십사고.

101) 말았다그네 : 말았다가.

102) 담읍생 : 담읍사고. 먹다의 낮춤말.

103) 무사 : 왜.

104) 거려아전 : 떠서.

105) 푸푸떠불라 : '푸푸는 뜨거운 것을 식힐 때 부는 소리, '떠불라'는 몹시 뜨거울 때 내는 소리, '따가와'.

106) 갑주 : 갑시다. 가지요.

107) 잇엉 : 있어서.

108) 무스건고 : 무엇인가.

췌여 보민 뚝만 물락물락¹⁰⁹⁾ 췌여지고, 셋마퉁이 마 파는 딘.

“이거 무스건고”

허영 보민¹¹⁰⁾ 주뎅이¹¹¹⁾ 베염¹¹²⁾ 중싱만¹¹³⁾ 탕천(撐天)하고 족은 마퉁이 마 파난 딘 자갈이엔
죽어 데겨분 게¹¹⁴⁾ 봉강¹¹⁵⁾ 흑(土) 쓸엉 보민 금(金)뎅이곡 봉강 보민 은(銀)뎅이곡 둥글둥글 나
아온다. 감은 암쉐[黑牝牛]에 시꺼¹¹⁶⁾ 오니 물무쉬[牛馬] 나와 간다. 유기전답(鎰器田畠) 나와 간
다. 가제 높은 와개집(瓦家) 풍경(風磬) 들고 와라치라¹¹⁷⁾ 잘 살아 간다.

흐를날은 가믄장아기가,

“우린 영¹¹⁸⁾ 잘 살아도 날 나아준 설운 어머님 설운 아바님 틀림엇이 게와시[乞人]되연 이 올
레¹¹⁹⁾ 저 올레 돌암실거여.¹²⁰⁾ 아바님 어머님이나 쫓아 봐사 훌로고나.¹²¹⁾ 게와시 잔치나 허여
보저.”

신문 관고(新聞廣告) 내여 놓고 석돌 열흘 벽일 게와시 잔치를 허여 가니 일천 게와시[一千乞
人]가 모여든다. 일만 게와시가 모여든다. 돈 그린¹²²⁾ 게와시 돈을 주고 밥 그런 게와시 밥을 주
고 물 그런 게와시 물을 주어, 석돌 열흘 벽일만엔 할망 게와시¹²³⁾ 하르방 게와시가 혼 막뎅
이¹²⁴⁾ 지프곡 허연 들어온다. 감은장아기가 역국(役軍)덜안티 말을 흐드.

“절로¹²⁵⁾ 오는 게와시랑 우으로 앗건 알로 멱여가당 떨어불곡, 가온디 앗건 양끗으로 멱이당
떨어불라.”

강이영성과 홍운소천은 그릇 소린 둘각둘각 나도 먹을 츄렌 아니 와가난 이례 왕¹²⁶⁾ 앗악¹²⁷⁾
저레 강 앗악 흐단 보난¹²⁸⁾ 다른 게와신 다 먹언 간다.

가믄장아긴 수벨감¹²⁹⁾ 수장남¹³⁰⁾ 느진덕정하님신디¹³¹⁾,

“저 게와시랑 가지 못흐게 심어놨당¹³²⁾ 다른 게와시 다 가분 후제랑¹³³⁾ 안사랑으로¹³⁴⁾ 청허여
들이라.”

109) 물락물락 : 매우 물씬물씬한 모양.

110) 보민 : 해서 보면.

111) 주뎅이 : 지네.

112) 베염 : 뱀.

113) 중싱만 : 짐승만.

114) 죽어 데껴분 게 : 주워 던져 버린 것이.

115) 봉강 : 주워서.

116) 시꺼 : 실어.

117) 와라치라 : 고관이 행차할 때 비키라고 지르는 소리.

118) 영 : 이렇게.

119) 올레 : 거릿길에서 집으로 드나드는 골목길.

120) 돌암실거여 : 돌고 있을 거야.

121) 훌로고나 : 하겠구나.

122) 그린 : 그리운.

123) 할망 게와시 : 할멈 거지.

124) 혼 막뎅이 : 한 지팡이.

125) 절로 : 저기로.

126) 이례 왕 : 이리 와서.

127) 앗악 : 앉았다가.

128) 보난 : 하다가 보니.

129) 수벨감 : 수(首)머슴을 높여 부르는 말.

130) 수장남 : 수(首)머슴.

131) 느진덕정하님신디 : 계집종을 일컫는 말. '-신디'는 -에게.

132) 심어놨당 : 잡아 놓았다가.

133) 후제랑 : 뒤엘랑.

134) 안사랑 : 안사랑방. 안방의 뜻.

다 가분 후젠 안사랑으로 청허여 들이고 도용칠판에¹³⁵⁾ 귀암약주¹³⁶⁾ 만상데우(滿床待遇) 흐난 막 먹어간다. 가문장아기가 오라네.¹³⁷⁾

“이 게와시덜 옛말이나 골읍서¹³⁸⁾ 듣저.”

“들은 옛말도 웃수다.”

“계건¹³⁹⁾ 들은 말 본 말이나 골읍서.”

“들은 말 본 말도 웃수다.”

“계건 살아난 말이라도 골읍서 듣저.”

“살아난 말은 골을 거 있수다.”

오늘 오늘 오늘이여. 날도 좋아 오늘이여. 옛날 옛적 …… [이제까지 풀어온 본풀이 즉 안맹(眼盲)이 되어 거지 된 과거 얘기를 노래함.]

가문장아기가 청감주(淸甘酒) 돈감주를 지리념념¹⁴⁰⁾ 비와¹⁴¹⁾ 듣고,

“이 술 혔 잔 들읍서. 천년주(千年酒)우다. 만년주(萬年酒)우다. 설운 어머님 아바님아, 나 가문 장아기우다. 나 술 혔 잔 들읍서.”

“이!¹⁴²⁾ 어느 거 가문장아기!”

들렸단¹⁴³⁾ 술잔 탈랑¹⁴⁴⁾ 놓은 게 설운 아바님 설운 어머님 눈이 팔롱¹⁴⁵⁾ 붉어졌구나. 게 명천지(開明天地)가 뭐였구나.

- 濟州市 龍潭洞 男巫 安仕仁 口誦
朝天面 咸德里 男巫 金萬寶 實演

옛날 옛적 강이영성이서불은 윗마을 웃상실에 살고, 홍운소천궁에 궁전궁납은 아래 마을 젯상실에 삽니다. 너무나 가난하여 어느날 강이영성은 아래 쪽이 풍년이라는 말을 듣고 얻어 먹으러 가고 홍운소천은 위 쪽에 풍년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얻어 먹으러 가는데, 길에 구르는 돌도 연분이 있듯이 서로 만나 통성명하고 언약하여 부부살림을 하게 됩니다.

그날부터 강이영성과 홍운소천은 너무 가난하기에 남의 품팔이를 하면서 그럭저럭 사는데, 부부 사이에 유태가 있어간다. 아버지 몸에 흰 피 석 달 어머니 몸에 검은 피 석 달, 살 만들고 뼈 만들고 아홉 달 열 달 준삭을 채워 여자 아기 태어난다. 일가친척 없고 먹을 쌀 입을 옷이 없으니 동네에서 불쌍하다고 은그릇에 가루를 타 먹여 살려 주니 ‘은장아기’로 이름 석자를 지어놓고, 이 아기 한두 살이 넘어가니 둘째딸이 포태된다. 아버지 몸에 흰 피 석 달 어머니 몸에 검은

135) 도용칠판 : 통영칠판(統營漆盤).

136) 귀암약주 : 좋은 술, 귀한 약주?

137) 오라네 : 와서.

138) 골읍서 : 말하십시오.

139) 계건 : 그러거든.

140) 지리념념 : 그릇이 철철 넘치는 모양.

141) 비와 : 부어.

142) 이 : 감탄사. 깜짝 놀라며 반문할 때 내는 소리.

143) 들렸단 : 들었던.

144) 탈랑 : 그릇, 쇠붙이 따위가 덜어지는 모양, 또는 그 소리.

145) 팔롱¹⁴⁵⁾ : 눈을 정기차게 뜬 모양.

피 석 달 열흘, 살 만들고 뼈 만들어 아홉 달 열 달 준삭을 채워 여자아기 태어난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놋그릇에 가루를 타 먹여 살려 ‘놋장아기’로 이름 석자를 지어간다. 셋째 딸은 포태되니 아버지 몸에 흰 피 석 달 어머니 몸에 검은 피 석 달, 아홉 달 열 달 준삭을 채워 여자아기 태어나니,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나무 바가지에 가루를 타 먹여 살려 주니 ‘가믄장아기’로 이름 석자를 지어간다.

은장아기, 놋장아기, 가믄장아기 삼형제가 태어나 한두 살이 되어 가니, 점점 발복하여 유기전답이 생기고 우마가 생겨 처마 높은 기와집 네 귀에 풍경 달아 천하거부가 되어 간다. 딸 삼형제 키우는데, 상다락 중다락 하다락을 지어 놓고 놀음놀이를 시키면서 키우는데 세월이 무정하게 빨리 흘러 15세가 지나간다.

하루는 비는 촉촉하게 오는데, 강이영성과 흥운소천 부부가 앉아서 너무 심심하니 딸아기들과 문답이나 해 보고자 하여,

“큰딸아기 여기 와라. 은장아기야. 너는 누구 덕에 먹고 입고 잘 사느냐?”

“하늘님도 덕입니다. 지하님도 덕입니다. 아버님도 덕입니다. 어머님도 덕입니다.”

“큰딸아기 기특하다. 어서 네 방으로 가라.”

“둘째딸아기 이리 와라. 놋장아기 너는 누구 덕에 먹고 입고 행위발신하느냐?”

“하늘님도 덕입니다. 지하님도 덕입니다. 아버님도 덕입니다. 어머님도 덕입니다.”

“둘째딸아기 기특하다. 어서 네 방으로 가라.”

“막내딸아기 이리 와라. 가믄장아기야. 너는 누구 덕에 먹고 입고 행위발신하느냐?”

가믄장아기가 말을 하되,

“하늘님도 덕입니다. 지하님도 덕입니다. 아버님도 덕입니다. 어머님도 덕입니다마는 나 배꼽 밑에 있는 선의 덕으로 먹고 입고 행위발신합니다.”

“이런 불효막심한 여자식이 어디 있느냐. 어서 빨리 나가거라.”

어머니 눈에 거슬리고 아버지 눈에 박게 보여 입던 의복을 거두어 검은 암소에 실어 놓고 먹을 식량을 실어 집을 나간다.

“어머님아, 잘 살고 계십시오. 아버님아, 잘 살고 계십시오.”

먼 올래에 나오니, 어머니는 부모의 정 때문에 딸자식 보내려 하니 섭섭하여,

“큰딸아기야, 나가 보아라. 설운 딸아기 식은 밥에 물이라도 말아 먹고 가라고 하라.”

큰형인 은장아기는 노둣돌 위로 올라서면서,

“설운 아우야, 빨리 가 버려라. 아버지 어머니가 너를 때리러 나온다.”

가믄장아기가 말을 하되,

“설운 큰형님 노둣돌 아래로 내려서면 청지네 몸으로나 환생하십시오.”

큰형님이 노둣돌 아래로 내려서니 청지네 몸으로 환생해 간다.

큰딸아기 나간 것이 안 와 가니, 둘째딸아기 불러 놓고,

“저 올래에 나가 보아라. 설운 아기 떠나는데 식은 밥에 물이라도 말아 먹고 가라고 하라.”

둘째형인 놋장아기가 올래에 나와 거름 위로 올라서면서,

“아이고 설운 아우야, 빨리 가 버려라. 아버지 어머니가 널 때리러 나온다.”

가믄장아기가 말을 하되,

“설운 둘째 형이랑 거름 아래로 내려서면 용달버섯 몸으로나 환생하십시오.”

둘째 형이 거름 아래에 내려서니 용달버섯 몸으로 환생해 간다.

강이영성과 흥운소천은 앉았다가 큰딸아기 소식이 없고 둘째딸아기 소식도 없어지니.

“이게 어떤 일인고.”

하여 문 밖으로 내닫다가 문 위 지방에 눈이 걸려 장님이 됩니다. 강이영성이서불 흥운소천궁에 궁은 앉은 채로 먹고 입고 써 가니. 재산이 탕진되어 거지로 나서게 되었다.

가믄장아기는 검은 암소에 먹을 식량을 싣고 이 재 넘고 저 재 넘고 신산만산 깊은 산으로 올라가는데, 해는 일락서산에 다 져가고, 월출동령에 달은 안 솟고 넓은 벌판이 있는데, 산중 산앞에 있는 머물 곳을 찾다 보니 수수깡 기둥에 거적문을 달고 돌쩌귀 하나로 만든 아주 허름한 초막이 있었구나.

“오늘은 여기나 가서 하룻밤 머물렀다 가자.”

먼 올래로 들어서면서 보니 백발노장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니, 검은 암소에 먹을 식량 실은 것은 노둣돌에 메어두고 들어가면서,

“넘어가는 행인인데 해는 서산에 다 저물어, 갈 데 없으니 하룻밤 머물렀다 갈 수 있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을 하되,

“우리 집에는 아들이 삼형제 있어서 누울 수 있는 빈 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으면 부엌이라도 좋으니 하룻밤만 머물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들어가 앉아 있더니, 해가 져 가는데 와르릉탕 와르릉탕 소리가 바깥에서 들려온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집의 큰마퉁이 마를 파서 오는 소리입니다.”

조금 있으니, 큰마퉁이 들어오더니만,

“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가 애쓰게 마를 파다가 배부르게 먹이다 보니 넘어가는 계집애를 데려다 놀음놀이하고 있구나.”

욕을 한다.

조금 있더니 또 와릉탕 와릉탕 소리가 바깥에서 나는데, 가믄장아기가,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집의 둘째 마퉁이 마를 파서 오는 소리입니다.”

둘째 마퉁이 들어오더니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가 마를 파다 잘 먹이다 보니 길 넘어가는 계집아이를 머물게 했구나. 우리 집 마당엔 전혀 소도 안 매었었는데 풍운조화가 들었구나.”

역시 욕을 해 간다.

조금 있으니, 또 와릉탕 와릉탕 소리가 나니,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우리 작은 마퉁이가 마를 파서 오는 소리입니다.”

작은 마퉁이는 먼 올래로 들어서면서 32개 이빨을 허우덩싹 웃으면서.

“하, 이거 우리 집에 난 데 없이 검은 암소랑 사람이랑 모두 들어와 있으니 어느 하늘에서 돋는 일이나 아닌가.”

반가워하며 들어온다.

가만히 보니, 큰마퉁인 마를 삶아서,

“어머니 아버지는 먼저 나서 많이 먹었으니 마 모가지나 드십시오.”

마 모가지를 꺾어 드리고, 자기는 잔등이로 우막우막 먹고, 둘째 마퉁인 마를 삶아서,

“어머니 아버지는 먼저 나 많이 먹었으니 마 꼬리나 드십시오.”

마 꼬리를 끊어 주고, 작은 마퉁인 마를 삶으니,

“설운 어머님 아버님, 우리들 낳아 키우려 하니 얼마나 공이 들고, 이제 살면 몇 해를 살 겁니까.”

양 끝은 꺾어두고 잔등이로 드린다. 가만히 보니 쓸 만한 것은 작은 마퉁이밖에 없구나.

가믄장아기는 찹쌀을 잘 일어서 솥을 빌어 밥을 하고,

“문전신 모른 제사 있으며, 주인 모른 나그네 있습니까.”

밥을 떠 상을 차려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들고 가니,

“할아버지 대에도 아니 먹었던 것이다.”

하면서 안 먹어, 큰마퉁이한테 들고 가니,

“조상 대에도 안 먹었던 이런 벌레밥 안 먹겠다.”

팥죽 같은 화만 낸다. 둘째마퉁이한테 들고 가도,

“이런 벌레밥 안 먹겠다.”

팥죽 같은 화만 낸다. 작은 마퉁이한테 밥상을 들고 가니, 서로 통성명하고 듬뿍듬뿍 떠서 먹는다.

큰마퉁이 둘째마퉁이는 창문 구멍으로 몰래 보다가 아우가 먹는 걸 보니 부러워서,

“아우야, 우리도 한 숟가락만 달라.”

“자시라고 할 땐 말았다가 담으라고 할 땐 어찌 먹으려고 합니까?”

한가운데 뜨거운 밥으로 떠서 큰형, 둘째 형 손에 놓으니 뜨거워 푸푸 불며 먹어간다.

밥상을 다 설거지해 버린 끝에는 길에 구르는 돌도 연분이 있는데, 꽃을 본 나비라. 서로가 언약이 되어 작은 마퉁이를 곱게 목욕시키고 새옷을 입혀 내 놓으니 절세미남이 분명하구나. 백년 동거 약속하고 한 방에서 잠을 잔다.

다음날 아침 가믄장아기가,

“산중 산앞 마 파던 데를 구경갑시다.”

작은 마퉁이와 함께 가 보니 큰마퉁이가 마 팠던 데는 누릿누릿한 것이 있어 ‘이거 무엇인가.’ 하여 쥐어 보면 똥만 물컹물컹 쥐어지고, 둘째 마퉁이가 마를 파던 데는 ‘이거 무엇인고.’ 해서 보면 지네, 뱀, 짐승들이 가득하고, 작은 마퉁이가 마를 팠던 데는 자갈이라 하여 주워 던져버린 것이 있어 곁에 묻은 흙을 쓸어 보면 금덩이이고, 주워 보면 은덩이이고, 둥글둥글 나온다. 검은 암소에 실어 와 파니 우마가 생기고 유기전답이 생겨난다. 처마 높은 기와집에 풍경 달고 남부럽게 잘 살아간다.

하루는 가믄장아기가,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아도 나를 낳아준 설운 어머님 아버님은 틀림없이 거지가 되어서 이 골목 저 골목을 돌고 있을 것입니다. 아버님 어머님이나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거지 잔치나 해 보고 싶습니다.”

신문광고 내 놓고 석달 열흘 백일 거지 잔치를 열어 가니, 1천 명이나 되는 거지가 모여든다. 1만명의 거지들이 모여든다. 돈을 원하는 거지에게는 돈을 주고 밥을 원하는 거지에게는 밥을 주고, 물을 그리워하는 거지에게는 물을 주며 거지 잔치를 치르는데, 석달 열흘 백일만엔 할머니 거지와 할아버지 거지가 한 지팡이를 짚고 들어온다. 가믄장아기는 역꾼들에게 말을 하되,

“저기로 오는 거지는 밥을 먹기 위해 위로 앉으면 밑에서부터 밥을 주다가 떨어버리고, 밑에 앉으면 위로부터 밥을 주다가 떨어버리고, 가운데 앉으면 양끝으로 밥을 주다가 떨어버리라.”

강이영성과 홍운소천은 그릇 소리는 딸깍딸깍 나도 먹을 차례가 되질 않으니 이리 가서 앉았다가, 저리 가서 앉았다가 하다 보니, 다른 거지들은 다 잔치를 먹고 돌아간다.

가믄장아기는 수별감 수머슴 느진덕정하님에게,

“저 거지는 가지 못하게 잡아 놓았다가 다른 거지 다 가버린 후에는 안방으로 청해 들이라.”

거지들이 다 가버린 후에는 안방으로 청해 들이고 통영칠반에 귀한 약주 한 상 가득히 차려놓으니, 두 거지는 정신없이 먹어간다. 가믄장아기가 와서,

“이 거지들아, 옛말이나 말해 보십시오. 들을 테니.”

“들은 옛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들었던 말이나 봤던 말이나 있으면 말하십시오.”

“들었던 말, 봤던 말도 없습니다.”

“그러면 살아온 말이라도 하십시오. 들을테니.”

“살아온 말은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오늘 오늘이여. 날도 좋아 오늘이여. 옛날옛적……

[이제까지 풀어온 본풀이 즉 장님이 되어 거지 된 과거 얘기를 노래함.]

가믄장아기가 청감주 단감주를 그릇이 철철 넘치게 부어 들고,

“이 술 한 잔 드십시오. 천년주입니다. 만년주입니다. 설운 어머님 아버님 제가 가믄장이기입니다. 내 술 한 잔 받으십시오.”

“이! 어느 거 가믄장아기!”

들었던 술잔을 탈랑하게 놓은 것이 설운 아버님 설운 어머님 눈이 팔롱하게 밝아졌구나. 개명 천지가 되었구나.